NEXT plus
No.62 2008.10.24~2008.11.14
영화진흥위원회와 씨네21이 만드는 새로운 영화잡지
매월 2, 4주 발행

난 다른 영화 본다!

〈이리〉 〈가벼운 잠〉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카페〉 〈러블리 로즈〉
〈컨트롤〉 〈하늘을 걷는 소년〉 〈슬리핑 뷰티〉
〈피아노의 숲〉

다채로운 단편의 묘미,
제6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가족과 극장 나들이 하자,
제2회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오! 인디풀

인디스토리 10돌, 독립영화들의 향연

CONTENTS

발행인 강한섭
영화진흥위원회
130-010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
전화 02-958-7561
팩스 02-958-7560 www.kofic.or.kr
국내진흥2팀장 이경철
담당 태은정 박효진
편집인 이인우
씨네21주식회사
121-75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한겨레신문사 4층
전화 02-6377-0500
팩스 02-6377-0505
www.cine21.com
편집장 고경태
취재 정한석 정재혁 장영엽
편집 심은하 김경우 장미
교열 김귀숙
사진 손홍주 이혜정 오계옥
디자인 김윤희 원희승
사업기획 · 마케팅 서지화
광고 최승식
제작 여인석
스캔 · 출력 한겨레신문사 화상제작팀 02-710-0114
인쇄 대한교과서(주) 031-730-8106

표지 〈이리〉
디자인 원희승

〈플라이 미 투 더 문〉

02 THEATER 상영관표
04 NEWS 관객 IN 예술극장 | 미로스페이스에서 만난 박안숙씨
고전영화관 | 〈육체의 길〉
05 REVIEW 〈이리〉 〈가벼운 잠〉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카페〉 〈러블리 로즈〉
〈컨트롤〉 〈하늘을 걷는 소년〉 〈슬리핑 뷰티〉 〈피아노의 숲〉
독립영화 쇼케이스 | 〈외할머니와 레슬링〉 〈너의 세계〉 〈솔로 36분〉
10 SPECIAL 가족과 극장 나들이 하자, 제2회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11 SPECIAL 오래된 극장, 사랑의 기억 저편-에릭 로메르&누벨바그 작가전
12 SPECIAL 단편의 다양한 묘미, 제6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13 SPECIAL Welcome to My Film Festival, 신디 잼 하베스트
14 SPECIAL 인디스토리 10주년 기념하는 오! 인디풀영화제
15 SPECIAL 고다르 영화전, 제12회 노동영화제
16 COLUMN 〈사과〉_이석원

INDIE DIARY

일러스트레이션 정은규

No.62 2008.10.24~11.14
NEXT plus

〈NEXT plus〉는 영화진흥위원회와 씨네21주식회사가 공동 기획 · 제작한 영화정보 무가지입니다.

〈NEXT plus〉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NEXT plus〉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NEXT plus〉가 그 저작권자이므로 무단 사용 및 복제를 금합니다.

SCHEDULE 아트플러스 시네마디지털워크

www.artpluscn.or.kr, cafe.naver.com/artpluscn

시간표는 각 상영관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미로스페이스 02-3210-3358 www.mirospace.co.kr
10/23~ 피아노, 솔로/도쿄!

드림시네마 02-362-3149
10/15~ 미션/아메리칸 헌팅/영웅본색

스폰지하우스 광화문 02-2285-2095 ARS 02-2285-2090 www.spongehouse.com
10/23~ 도쿄!

스폰지하우스 압구정 02-3444-6640 www.spongehouse.com
10/23~ 도쿄!

스폰지하우스 중앙(1, 2, 6관) 02-2285-2011 ARS 02-776-8866 www.spongehouse.com
10/23~ 구구는 고양이다/도쿄!/컨트롤/중경

시네마 상상마당 02-330-6262~3 cinema.sangsangmadang.com
10/23~ 피아노, 솔로/슬리핑 뷰티/하늘을 걷는 소년/가벼운 잠
10/30~ 컨트롤
10/28 10월의 단편상상극장
11/4, 11/11 11월의 단편상상극장

씨네시티(12관) ARS 1644-0757 www.icinecity.co.kr/
10/23~30 도쿄!

씨네큐브 광화문(1, 2관) 1588-8831 www.cinecube.net
10/23~11/5 나는, 인어공주
~11/4 사과/여름, 속삭임
11/6~12 아시아나단편영화제
11/5~10 나는, 인어공주

아트하우스 모모
10/23~11/5 나는, 인어공주/라틴아메리카로 떠나는 영화 배낭여행/여름, 속삭임
11/6~12 오구리 고헤이 감독 영화제/나는, 인어공주

필름포럼(1, 2관) 02-764-6236 www.cinecube.net
10/2~ 자유로운 세계
10/16~ 사과
10/30~ 피아노의 숲

하이퍼텍나다 02-766-3390 www.dsartcenter.co.kr
10/2~29 극장 내부공사 관계로 휴관
10/30~11/5 커밍순 COMING SOON & 나다 베스트 컬렉션

허리우드 클래식 02-3672-4321~3, 5 www.classiccinema.co.kr
10/15~ 비몽

CGV압구정 무비꼴라쥬(4관) 1544-1122 www.cgv.co.kr
10/23~29 피아노, 솔로/여름, 속삭임
10/30~11/5 피아노의 숲
11/6~12 길/피아노의 숲

인디스페이스 02-778-0366 indiespace.kr
10/29~11/5 슬리핑 뷰티/가벼운 잠/하늘을 걷는 소년
11/6~7 웰컴 투 마이 페스티벌(미디액트 영화상영실무 강좌 워크숍 수료 영화제)
11/9~12 인디풀영화제(인디스토리10주년 기념 영화제)

서울아트시네마 02-741-9782 www.cinematheque.seoul.kr
10/23 18:30 이탈리아 무성영화 연주상영 〈카비리아〉
10/24 20:00 인디스토리 쇼케이스 금요단편극장~2008년 영화계가 사랑한 'SHORT FILMS'
10/25 10:00 영화관 속 작은 학교 〈뮤리엘〉교육 프로그램, 신청접수로만 진행
10/25 19:30 작가를 만나다-김응수 〈과거는 낯선 나라다〉
10/27 19:00 영화·희망·나눔 영화인 캠페인 정기상영-〈필승必勝 ver2.0 연영석〉(신청 접수로 진행)

서울애니시네마 02-3455-8341~2 cinema.ani.seoul.kr
10/23~29 월 · Ⓔ
10/31~11/2 국제애니메이션의 날 기념 상영회 및 워크숍

경기

롯데시네마 아르떼 일산관(5관) 1544-8855 www.lottecinema.co.kr
10/23~29 비몽
10/30~11/5 소년 감독

씨너스 이채 AT9(1관) ARS 031-955-5999 www.cinus.co.kr
10/23~29 스크린에서 만나는 세계의 베스트셀러전(우리들의 행복한 시간/파이란/냉정과 열정사이/시간을 달리는 소녀/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향수/색, 계/어웨이 프롬 허)
10/30~ 컨트롤/하늘을 걷는 소년/슬리핑 뷰티/가벼운 잠

인천

CGV인천 무비꼴라쥬(1관) 1544-1122 www.cgv.co.kr
10/23~29 여름, 속삭임
10/30~11/5 피아노의 숲
11/6~12 길/피아노의 숲

영화공간 주안(1,2관) 032-427-6777 www.cinespacejuan.com
10/9~ 소리 아이
10/23~ 젤리피쉬/달려라 자전거

대전

대전아트시네마 042-472-1138 cafe.naver.com/artcinema.cafe
10/23~ 비몽/슬리핑 뷰티/텐텐/두 개의 눈을 가진 아일랜드/신디 잼 하베스트(시네마디지털서울 2008 수상작 순회상영회)

대구

동성아트홀 053-425-2845 cafe.naver.com/dartholic cafe.daum.net/dartholic
10/23~11/2 여기보다 어딘가에/하늘을 걷는 소년/슬리핑 뷰티/가벼운 잠
11/3~5 신디 잼 하베스트(시네마디지털서울2008 수상작 순회상영회)/패스트 퓨리어스&언리미티드/길
11/6~11 구구는 고양이다/카라멜/빅시티

광주

광주극장 062-224-5858 www.cinemakwangju.com
10/24~26 신디 잼 하베스트(시네마디지털서울2008 수상작 순회상영회)
10/27~11/2 세르지오 레오네 특별전(석양의 무법자 외 3편)/샘 페킨파 특별전(와일드 번치, 대평원)
11/3~12 멜路에 빠지다! 9편의 사랑 이야기

전주

프리머스 예술영화관 전주(9관) 1544-5522 cafe.naver.com/cinemagwangju
10/16~29 여름, 속삭임

부산

국도&가람예술관 051-245-5441 cafe.naver.com/gukdo
10/23~11/12 빅시티/집오리와 들오리의 코인로커/매드 디텍티브

CGV서면 무비꼴라쥬(5관) 1544-1122 www.cgv.co.kr
10/23~29 여름, 속삭임
10/30~11/5 피아노의 숲
11/6~12 길/피아노의 숲

롯데시네마 아르떼 센텀시티관(8관) 1544-8855 www.lottecinema.co.kr
10/23~29 비몽
10/30~11/5 소년 감독

'사랑의 기억 저편-에릭 로메르&누벨바그 작가전'

일정	10월25일(토)	26일(일)	27일(월)	28일(화)	29일(수)	30일(목)	31일(금)
18:20 20:30	모드 집에서의 하룻밤 (20:40)사랑의 찬가	히로시마 내사랑 클레르의 무릎	아름다운 결혼 사랑의 찬가	훔친 키스 해변의 폴린느	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히로시마 내 사랑	사랑의 찬가 모드 집에서의 하룻밤	클레르의 무릎 훔친 키스

일정	11월1일(토)	2일(일)	3일(월)	4일(화)	5일(수)	6일(목)	7일(금)
18:20 20:30	히로시마 내 사랑 아름다운 결혼	해변의 폴린느 훔친 키스	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히로시마 내사랑	모드 집에서의 하룻밤 (20:40)훔친 키스	히로시마 내 사랑 클레르의 무릎	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훔친 키스	히로시마 내 사랑 해변의 폴린느

일정: 10월25일(토)~11월7일(금) **장소:** 아트선재 아트홀
문의: 02-730-3200, http://cafe.naver.com/artsonjearthall

여름, 속삭임

제작 편장완, 김은주 **감독** 김은주 **출연** 이영은, 하석진, 최종원, 우상민 **배급** CJ엔터테인먼트(주) **제작연도** 2008년 **상영시간** 96분 **등급** 청소년 관람불가

일년 전 부인과 사별한 노교수는 미국에 있는 아들 집에 다녀오기 위해 여름방학 동안 집을 비운다. 은퇴를 앞둔 노교수는 집안 곳곳에 쌓여 있는 책들을 기증하기로 결심하고 제자인 영조(이영은)에게 그 일을 맡긴다. 그리고 화원을 운영하는 윤수(하석진)에게는 집안의 난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떠난다. 각자 다른 날 노교수 집에 오는 영조와 윤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덩치'라는 고양이다.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영조는 집에만 오면 고양이를 방 안에 가두고, 동물을 좋아하는 윤수는 그런 영조의 행동에 화가 치민다. 오해를 쌓아가던 두 사람은 메모지를 통해 조금씩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마침내 얼굴을 마주치는 날이 온다. 영조와 윤수의 현재 이야기 축과 노교수 부부의 과거를 병행시키며 전개되는 이 영화는 영조와 윤수의 풋풋한 감정을 전경에 깔고 노교수의 진득한 부부애를 배경에 두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비몽

감독 김기덕 **출연** 오다기리 조, 이나영 **제작연도** 2008년 **상영시간** 95분 **등급** 청소년 관람불가

김기덕 감독의 열다섯 번째 영화인 〈비몽〉은 꿈꾸는 남자 진(오다기리 조)과 그의 꿈을 몽유 상태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여자 란(이나영)에 관한 영화다. 진은 떠나간 사랑을 잊지 못하고, 밤마다 옛사랑을 찾아가는 꿈을 꾼다. 진이 지나간 사랑을 꿈속에서 찾아나설 때마다, 란은 너무도 아팠던 사랑, 그래서 자신이 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아가야 한다. 사랑의 지속을 원하는 진과 그 단절을 원하는 란, 그들은 한몸이지만, 그들의 욕망은 서로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인물의 고름 진 상처를 그 위에 돋은 새살로 보듬으려는 전작들처럼, 김기덕 감독은 〈비몽〉을 통해 사랑의 슬픈 파멸을 나비의 아름다운 날갯짓과 서로를 맞잡은 손의 클로즈업으로 승화시킨다.

빅시티 Big City

감독 · 각본 드자멜 벤살라 **출연** 뱅상 발라동, 파올리나 바귀니 **수입 · 배급** (주)미로비전 **제작연도** 2007년 **상영시간** 98분 **등급** 12세 관람가

서부 개척 시절, 인디언 토벌을 위해 마을의 어른들이 전쟁터로 떠나지만 그들은 결국 요새에 갇혀 포위된다. 마을에 남은 것은 아이들과 30살이 되도록 글도 못 읽는 얼뜨기 반조, 그리고 술에 곯아떨어졌던 주정꾼뿐이다. 무정부 상태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어른인 주정뱅이는 각자가 부모의 일을 이어받는다는 원칙을 정한다. 시장의 아들은 시장을, 은행장의 아들은 은행장을, 매춘부의 딸은 매춘부를, 흑인은 다시 노예가 되는 등 아이들은 다시금 어른의 악덕을 되풀이한다. 영화 〈빅시티〉는 탐욕과 배제와 폭력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웨스턴이라는 할리우드 장르에 동화를 접목시켰다.

집오리와 들오리의 코인로커 アヒルと鴨のコインロッカ?

감독 나카무라 요시히로 **각본** 나카무라 요시히로, 스즈키 겐이치 **촬영** 고마쓰 다카시 **미술** 하야시 지나 **음악** 기쿠치 유키오, 사사 스쿠코 **출연** 에이타, 마쓰다 류헤이 **수입** 시네마벨리 **배급** 프리비전엔터테인먼트 **제작연도** 2007년 **상영시간** 110분 **등급** 15세 관람가

센다이시로 이사 온 시이나(하마다 가쿠)는 의문의 남자 가와사키(에이타)를 만난다. 밥 딜런의 노래 〈Blowin' in the Wind〉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시이나는 가와사키와 곧 친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가와사키는 시이나에게 또 다른 옆집 남자 도르지를 위해 고지엔 사전을 훔쳐주자는 제안을 한다. 이사카 고타로의 동명 소설이 원작인 〈집오리와 들오리의 코인로커〉는 밥 딜런의 노래 〈Blowin' in the Wind〉를 모티브로 인물들의 사연이 여러 갈래로 퍼져나가며, 영화는 이를 서로 얽고 꼬아 들려준다.

NEWS

아트플러스와 친구하고 싶은 분들 놀러오세요.
아트플러스 친구들의 열린 공간, 아트플러스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artplusCN

✚ 라틴아메리카로 떠나는 두 번째 영화배낭여행

아트하우스 모모는 9월 '라틴아메리카로 떠나는 영화배낭여행'에 이어 10월23일부터 11월5일까지 '라틴아메리카로 떠나는 영화배낭여행 2탄'을 연다. '체 게바라의 여정을 따라 영화로 떠나는 라틴아메리카 횡단 여행'이란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1탄에서의 인기 상영작과 미개봉 라틴아메리카 영화들이 소개될 예정. 2008년 베를린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인 〈엘리트 스쿼드〉가 개막작으로, 2008년 칸영화제 경쟁부문 상영작 〈레오네라〉가 폐막작으로 상영되며,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이 투 마마〉,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거미의 계략〉 등도 상영된다.

✚ 제34회 서울독립영화제, 총 51편의 본선진출작 결정

'상상의 휘모리'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제34회 서울독립영화제(이하 서독제)의 본선 진출작이 결정됐다. 12월11일부터 19일까지 인디스페이스에서 상영될 서독제의 본선 진출작은 총 51편으로, 장편이 11편, 단편이 40편이다. 상영작 중에는 올해 부산영화제에서 뉴커런츠상을 수상한 노경태 감독의 〈허수아비들의 땅〉과 인디애니페스트2008 대상작인 박지연 감독의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 지난 2005년 서독제에서 독불장군상을 수상했던 김경묵 감독의 〈청계천의 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51편의 본선 진출작은 장르 및 상영시간의 구분없이 경쟁한다.

고전영화관

11월11(화) 오후 2시
시네마테크 KOFA (상암동)

〈육체의 길(The Way of All Flesh)〉

감독 조긍하 출연 김승호, 김지미, 신성일 개봉연도 1967년 상영시간 103분

1928년 10월10일 어느 신문에 난 기사는 이렇게 적고 있다. "이 〈육톄(肉體)의 길〉이라는 영화의 경개(梗槪)를 소개하자면 어지간히 간단한 것이나 통속작품으로서는 몹시도 현실미(現實味)가 잇다." 그 밤부터 극장상영에 돌입한 이 할리우드발 영화는 무성영화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품 중 하나였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에밀 야닝스라는 거구의 독일 배우가 출연했다. 토키에 좌절한 야닝스는 2년 뒤 고국으로 돌아가 히틀러의 배우로 살게 된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59년, 〈시집가는 날〉의 성공으로 한창 주가를 높이던 배우 김승호는 조긍하 감독과 손잡고 이 작품 〈육체의 길〉을 리메이크했다. 할리우드에서 고군분투하던 독일 배우가 남긴 이 작품에 김승호는 애착이 많았다. 60년대 초를 거치면서 최정상의 스타로 군림한 그는, 연기와 삶에 황혼이 깃들 무렵인 67년 이 작품을 다시 리메이크하자고 조긍하 감독에게 제안했다. 59년의 〈육체의 길〉이 그가 한창 승승장구하던 시기의 산물이라면 67년의 이 작품은 어쩌면 쇠락해버린 스스로에 대한 자기반영적인 영화일 것이다. 영어를 잘 못했지만 '무성영화 스타'였기에 할리우드로 진출할 수 있었던 야닝스가 토키의 등장이라는 커다란 변화 앞에서 쓰라림을 맛보고 귀국을 택해야 했듯, 이미 너무나 변해버린 관객의 취향 앞에 늙어버린 자신을 발견해야 했던 김승호에게 두 번째 〈육체의 길〉은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가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와 같은 영화다. 두 나라의 현대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이 두 스타 배우에게 〈육체의 길〉은 진정 '현실미'있는 송가였다.

김한상 | 한국영상자료원 프로그래머

관객 IN 예술극장

"멀티플렉스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즐거움을 좋아해요"

미로스페이스에서 만난 영화친구 박안숙씨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얇은 목도리를 꽁꽁 여며 매고, 미로스페이스를 향했습니다. 오전 11시50분. 끼니를 미루면서 〈우린 액션배우다〉를 함께 관람한 총 3명의 관람객 중 영화를 보는 내내 가장 속이 시원한 웃음소리를 들려주신 박안숙(38 · 회사원)씨의 영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본 〈우린 액션배우다〉를 선택하신 동기와 감상은. 시놉시스가 재미있을 것 같고, 재미있을 거라고 (주위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어요. (웃음) 삶과 죽음의 찰나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진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불끈불끈 들더군요.

예술전용 극장관을 많이 찾으시나요. 자주 찾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멀티플렉스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주제의 영화를 많이 상영하기 때문이에요. 할리우드영화도 좋아하긴 하지만 예술영화가 주는 독특한 즐거움을 좋아하거든요.

올해 본 영화 중 기억에 남는 영화는 뭔가요. 얼마 전에 오다기리 조의 〈텐텐〉을 봤는데, 그 친구의 독특한 매력이 보여 나름 귀엽고 재미있었어요. '도쿄산책무비'라고 붙여놨는데, 도쿄도 도쿄지만, 가족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갖게 하는 영화였어요.

개봉이 기대되는 영화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쓰마부키 사토시 팬인데, 그가 출연하는 영화가 올해 개봉하는 게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웃음) 예술영화는 아니지만, 대니얼 크레이그가 출연하는 007영화도 예고편을 보니 새로운 접근을 한 것 같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봉준호 감독이 참여한 〈도쿄!〉도 무척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 〈괴물〉보다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를 인상 깊게 봤어요. 비록 흥행에 성공하진 않았지만, 발랄하고 신선해서 재미있게 봤거든요. 〈도쿄!〉의 세 감독 각기 다른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무척 기다려져요.

글 · 사진 박용애 통신원

이리

KEY
장률은 우리를
발가벗긴다.
하지만 위로도 한다.

감독 장률 **출연** 윤진서, 엄태웅 **제작연도** 2007년
상영시간 108분 **등급** 청소년 관람불가 **개봉** 11월13일 **상영관** 스폰지하우스 중앙 · 광화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폭발사고 이후 익산으로 지명이 바뀐 이리. 〈이리〉는 이리역 폭발 30주년 추모 행사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의 리포터가 시민들을 인터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은 신축된 익산역 앞에 전시된 사고 당시의 사진을 천천히 비추면, 사진 액자의 유리 위로 진서(윤진서)의 모습이 투영된다. 이리역 폭발 사고 바깥에 위치하면서도 또한 그 비극 속에 존재하는 진서는 그렇게 영화 속에 모습을 드러낸다. 실제로 진서는 사고 당시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고, 그때의 진동을 받고 태어났다. 그렇게 그녀는 도시 이리-익산의 과거이자 현재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리〉는 장률 감독의 전작이었던 〈중경〉과 한쌍을 이루는 작품이다. 애초에는 한편으로 기획되었지만 두편의 영화로 완성됐다. 〈중경〉에서 이리역 폭발 사고는 이미 언급된 바 있었다. 이리 출신이라 말했던 김광철은 여주인공 쑤이에게 사고 때 불구가 된 사연을 들려준다. 그는 사고로 다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도 잃었다며 그녀의 손으로 자신의 바지춤을 확인하게 한다. 폭발을 준비하는 포화 상태로 나아가는 도시가 중경이었다면, 폭발의 상처를 간직한 도시가 바로 이리다. 즉, 중경이 이리의 과거라면, 이리는 중경의 미래인 셈이다. 이는 실제의 무언가가 폭발하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그것을 통해 표상할 수 있는 인물 내면의 정서적 상태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속 이리역 폭발 사고는 물리적 시간으로는 무려 3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긴 시간의 간격이 느껴지지 않는다. 일년 전, 혹은 한달 전.

〈중경〉에는 폭발의 임계점으로 향해가는 과정의 긴장감이, 〈이리〉는 폭발 이후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노곤함이 감돈다는 차이가 있다 해도, 궁극적으로 이 두 작품은 장률 감독 특유의 정물화 같은 풍경이 인물의 황폐한 내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장률 감독은 곧잘 인물의 발가벗음을 통해 그 초라한 내면을 드러내곤 했다. 〈이리〉에서 기억이 오락가락하던 한 할아버지는 목을 매 자살한다. 그는 말 그대로 발가벗고 있다. 그 발가벗은 죽음을 목격한 진서는 이를 자신의 탓이라 말하려는 듯 자신의 뺨을 연거푸 때린다. 그녀는 헌신적으로 세상 모든 이에게 자신을 바치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몸도 마음도 착취하고 유린한다. 〈이리〉에서 장률은 현재의 익산역 철도 위로 길게 놓인 철교를 영화에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아마도 철교는 사고와 함께 폭발되었다가 다시 복원되었을 것이다. 장률 감독은 철교가 우리 눈에 선명히 보인다 하더라도, 진짜 철교는 폭발 이후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고 말하려 한다. 진서의 오빠 태웅(엄태웅)은 익산역 주변의 축소모형을 만들고, 맨 마지막으로 철교를 얹어놓지만, 이내 그것을 폭발시킨다. 영화에서 가장 모호하지만, 흥미로운 장면은 〈중경〉의 쑤이가 〈이리〉에 모습을 나타내는 영화의 엔딩장면이다. 진서는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쑤이에게 중국말로 또박또박하게 "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의 이름은 진서입니다"라고 환영의 인사를 건넨다(이때 카메라는 익산-이리역을 가로질러 진서에게 향한다). 바로 그 철교 위에서 말이다. 이 의례적인 '교과서적 인사'가 진심어린 환영의 인사가 되다니.

안시환 | 영화평론가

REVIEW

가벼운 잠

KEY
사소한 행복을 바랐던
소녀의 가냘픈 절박함.

제작사 (주)JS시네마 **감독** 임성찬 **출연** 최아진, 윤찬, 홍아름 **배급** 키노-아이 **제작연도** 2008년 **상영시간** 93분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10월23일 **상영관** 시네마 상상마당, 대구 동성아트홀

현실의 중압감은 무겁고 늘 소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열여섯 열린이(최아진)는 거친 현실을 살지만 겉으로는 결코 숨가빠하지 않는다. 단지 가벼운, 아주 가벼운 깃털처럼 가벼운 잠을 자면서 행복해지고 싶다. 열린이가 애써 만드는 보호색은 그녀가 소녀가장이라는 것도, 남몰래 원조교제를 한다는 것도 모르게 할 만큼 감쪽같다. 하지만 그외에는 열린이도 다른 아이와 다를 바 없는 여고생이다. 사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마음 예쁜 아이다.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 그리고 MP3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 있으면 서울을 달리는 버스도 비행기처럼 황홀해진다. 부모님은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고, 병원비가 없어서 엄마의 시신은 해부용으로 넘겨졌다. 복지관에서는 여섯살 여동생을 보육원에 보내라 한다. 여동생과 함께 지금처럼만 살며 잠시만이라도 가벼운 잠과 꿈을 통해 날아가고 싶었던 열린이는 결국 현실의 중력에 휘말려 곤두박질친다. 영화는 1999년 사회면에 등장했다 사라진 한 소녀를 망각에서 불러냈다. 너무도 낮은 소리로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행을 감지하기란 어렵다. 그들은 있으나 보이지 않는 자, 살아 있는 죽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감독 임성찬은 장산곶매 2기 출신으로 〈해 아래 햇살〉 등 단편영화를 찍어오다가 〈가벼운 잠〉으로 첫 장편영화를 선보였다. 소녀가장, 원조교제 같은 주제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전형적 무거움과 감수성의 과잉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한 소녀의 일상을 담백하고도 과장없이 그려냈다. 이 영화가 감동적이라면 열린이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을 소박하게 그려낸 데 있다. 실화에서 길어올린 무거운 소재들을 걷어내고 여고생의 내면과 감수성을 담백하게 그려낸 드라마의 솜씨를 따라가다 보면, 사소하나 찬란한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

송효정 | 영화평론가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카페

Cafe De Los Maestros

제작 구스타보 A. 산타올라야 **감독** 미구엘 코한 **출연** 호라시오 살간, 레오폴도 페데리코, 버지니아 루케 **배급** (주)영화사 진진 **제작연도** 2008년 **상영시간** 92분 **등급** 전체 관람가 **개봉** 11월6일 **상영관** 하이퍼텍 나다, 메가박스 코엑스

KEY
거장들이 모여
재현한 황금기
탱고의 선율.

축구와 열정의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 영화 〈해피 투게더〉에서처럼 이 도시에서는 사랑의 추억마저 탱고의 감미롭고도 잔혹한 선율과 함께였다. 도시에는 낡음과 새로움이 뒤섞이며 시간의 흔적이 각인되지만, 탱고의 선율만은 삶의 부침에서 떨어져 나와 우아한 영원의 차원에 살짝 얹혀 있다. 영화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탱고를 했으며 삶을 살아가는 포즈 자체가 바로 탱고였던 거장들이 하나둘씩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모여들면서 시작된다. 왜 부에노스아이레스인가? 탱고의 씨는 어느 땅에도 뿌려질 수 있지만 자라날 수 있는 건 바로 오직 그 땅뿐이기 때문이란다. 작곡가이자 음악가이며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바 있는 구스타보 산타올라야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콜론 극장에 탱고의 거장들을 모아 특별한 공연을 기획하고는 이 과정을 영상화했다.

탱고의 벨 에포크였던 1940~50년대를 풍미했던 거장 23명을 모아 그 시절의 탱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재현하고자 한 것. 본 다큐멘터리는 공연을 위해 이 도시로 모여든 거장들의 여정과 만남, 회고로 되어 있고 클라이맥스는 실제 콜론 극장에서 개최된 공연의 장면으로 구성되었다. 달콤함, 부드러움, 분노와 애절함 이 모든 것이 탱고의 우아한 탄력 안에 녹아든다. 영혼의 허파를 전율시키는 반도네온의 울림, "내가 바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탱고의 시대"라 말하는 여가수의 매혹적 목소리, 정적을 제대로 표현해야 진짜 탱고라는 연주자들. 영화는 좋은 시절을 뒤돌아보며 씁쓸한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적인 음악 그 자체를 예찬한다. 머리는 하얗게 세었으며, 영광은 과거의 것이라 하더라도 탱고는 여전히 그들과 우리를 현혹한다. 음악이 끝난 뒤 한 여가수의 독백처럼. 여기까지예요.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워요.

송효정 | 영화평론가

러블리 로즈

Owl and the Sparrow

KEY
베트남 노동시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아이들의 모습.

기획 티모시 리 뷔이, 함 트란 **감독 · 각본 · 촬영** 스테판 거져 **출연** 팜 티 한, 켓 라이, 레 더 루 **수입 · 배급** (주)아펙스엔터테인먼트, 프리비전엔터테인먼트 **제작연도** 2007년 **상영시간** 97분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11월6일 **상영관** 씨네큐브 광화문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시장경제체제의 사이공 거리에는 밥벌이를 위해 나선 아이들이 많다. 이들은 꽃이나 엽서 따위를 팔기도 하고 가게로 손님을 끄는 호객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제 막 상경한 열살 소녀 투이(팜 티 한)도 그들의 대열에 끼어든다. 부모를 잃은 투이는 삼촌의 대나무공장에서 혹사당하다 몰래 집을 빠져나와 홀로 사이공에 온 것이다. 이 영화는 투이가 사이공에 온 첫날인 월요일부터 마음의 가족을 얻는 금요일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투이가 도시에서 새롭게 인연을 맺은 아름다운 스튜어디스 란(켓 나이)과 동물원 사육사 하이는 자본주의와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성장한 세대로 순수하고 건강한 베트남의 젊은이들이다. 4년이나 힘든 사랑을 했던 란은 지쳐 있고,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은 하이는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해 괴로워한다. 두 사람과 친구가 된 투이는 아이다운 단순한 생각으로 외로운 둘을 맺어주고 싶어한다.

〈러블리 로즈〉는 도약하는 베트남의 현주소를 담고 있다. 음식을 먹는 사람들로 빼곡한 야시장의 풍경이나 인구 800만명의 사이공 도로를 메운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행렬을 비롯해 도심의 일상이 그대로 전해진다. 이 영화에는, 베트남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성장한 감독의 이력에 걸맞게 서구의 영화적 감수성과 베트남의 정서가 혼합해 있다. 감독은 거리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고 영화를 만들게 되었지만 결코 그 아이들을 어둡게 그리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아이들의 모습에서 밝은 미래를 보고자 했다는 것이 영화를 통해 느껴진다.

이현경 | 영화평론가

데이비드 보위, 이기 팝, 섹스 피스톨스, 벨벳 언더그라운드, 이들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은 우리가 70년대를 기억하는 방식 중 하나다. 〈컨트롤〉은 70년대 후반 영국 맨체스터 지역에서 활동했던 록밴드 조이 디비전의 싱어 이언 커티스의 짧은 생애를 그리는 영화다. 19살에 결혼하고 밴드를 결성했던 커티스는 불과 23살의 나이에 커다란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자살했다. 요절한 뮤지션들이 많지만 커티스는 특히나 어린 나이에 얻은 유명세와 그에 따르는 갈등과 개인적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짧은 인생을 마감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애인직업상담소에서 일하면서 밴드활동을 시작한 커티스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한 데비와 결혼한다. 조이 디비전은 자비로 녹음한 음반이 팩토리 레코드의 오너 토니 윌슨의 주의를 끌게 되어 TV에 출연하게 되고, 매니저 롭 크랜트를 만나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인정받기 시작한다.

밴드로서 순조로운 전진을 이루고 있었지만 커티스 자신은 점차 회의와 불안에 빠지게 된다. 갑자기 발병한 질병과 새롭게 찾아온 사랑에 그는 점차 통제력을 잃는다. 자신에게 헌신한 데비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커티스는 솔메이트 아닉을 향한 마음도 포기하지 못한다. 2007년 칸영화제 황금카메라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매혹적인 흑백영상 안에 커티스의 음악과 고뇌를 감각적으로 포착한다. 안톤 코르빈 감독은 사진작가 출신으로 메탈리카, 너바나, 유투 등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커티스의 미망인 데보라 커티스와 음반제작자 토니 윌슨, 조이 디비전의 남은 멤버들이 결성한 밴드 뉴 오더가 제작에 참여했으며, 커티스 역을 맡은 샘 라일리와 밴드 멤버들은 직접 연주와 노래를 했다.

이현경 | 영화평론가

컨트롤

Control

KEY
70년대 영국 맨체스터의 분위기와 이언 커티스의 음악을 담은 흑백상.

제작 안톤 코르빈, 토니 윌슨 **감독** 안톤 코르빈 **촬영** 마틴 루이 **음악** 조이 디비전, 뉴 오더 **출연** 샘 라일리, 사만다 모튼, 알렉산드라 마리아 라라, 토비 캠벨, 크레이그 파킨스 **수입** 위드시네마 **배급** 서울엔피필름(주) **제작연도** 2007년 **상영시간** 119분 **등급** 15세 관람가 **개봉** 10월30일 **상영관** 스폰지하우스 중앙

REVIEW

하늘을 걷는 소년

KEY
상처받은 두 영혼의 로드무비.

제작 (주)타임스토리, 필름앤북스 **감독** 노진수 **출연** 허이재, 강산, 선우선 **배급** 키노-아이 **제작연도** 2007년 **상영시간** 93분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10월23일 **상영관** 시네마 상상마당, 대구 동성아트홀

가장 짧은 순간에 가장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확보하겠다는 스무살의 아가씨(허이재)는 가출해서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여인으로부터 8살 난 아이(강산)의 배달을 부탁받는다. 남녀 사이의 원한관계에 이용된 이 가여운 아이는 성탄절에 태어나 이름이 예수인, 겉으로는 의젓하나 상처 깊은 아이다. 아가씨는 갈 데 없는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아이의 고향으로 떠난다.

영화의 각본은 한국의 대표적 극작가 이현화가 담당했다. 영화의 세부는 따뜻하나 전체는 잔혹하다. 이것이 이 영화가 표면적으로는 매끄러운 결말로 닫힌 듯이 보이면서도 미묘한 불안감을 주는 이유이다. 이 영화에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교류는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으나, 세상의 이치는 단호하며 냉정하여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가령 여덟살의 아이가 들려주는 예쁜 동화란 실상 차갑고도 단호한 세상의 기율과 질서에 대한 것이다. 표면은 세상에 등을 돌린 아가씨와 외로운 고아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과정을 로드무비로 묶어낸 매끄러운 영화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장면의 기이한 인상은 이러한 기대에 의심을 제기한다. 즉 편하게 보면 '하늘을 걷는 소년'의 새로운 가족 상봉기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단호한 세상의 부조리를 껴안으며- 영화의 원래 제목인- '다카포'(다시 연주하라)가 되는 것이다.

〈하늘을 걷는 소년〉은 여러 겹의 독해가 가능한 영화다. 영화를 가족 결합, 대안가족을 소재로 한 로드무비로 볼 때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휴먼드라마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르주아 가족에 침투한 실재(the Real)를 형상화한 파졸리니의 〈테오레마〉 어린이 버전으로 보이기도 한다.

송효정 | 영화평론가

진심으로 영화에 삶을 기투하고 있다는 긴장을 느낄 수 있는 젊은 감독의 데뷔작을 만나는 일은 흔치 않은 기꺼움이다. 첫 장편 〈슬리핑 뷰티〉로 데뷔하자마자 여자 김기덕이라는 '강인한 불온함'의 인상을 유포하고 있는 이한나는 젊고 야심찬 감독이다. 영화의 도발적 감수성은 소설가 배수아의 발칙함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영화는 '나의 사촌' '겨울잠'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는 소제목이 붙은 세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었다. 종종 이런 구성이 서사와 주제의 모호함을 은폐하기 위해 동원되기도 하나, 〈슬리핑 뷰티〉에서 세개의 에피소드는 여성들의 세계 인식과 그녀들이 공유하는 폭력/성의 경험의 반복/확대에 기여하며 주제를 심화한다. 초경을 시작한 소녀, 중국서 입양된 조선족 처녀, 중년의 농촌 여성 등 서로 다른 세대와 계층, 사회의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의 이야기는 도시가 아닌 야생의 공간인 농촌에서 이루어진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성과 폭력의 경험이지만, 그 배경에는 그러한 주제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 세부들이 영화의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조류독감으로 살처분되는 오리의 이미지, 상처의 핏물이 꽃처럼 아름답게 물드는 이미지, 임신한 여자가 숲길을 홀로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그 섬뜩한 이미지는 이 영화를 대중에게 분명히 각인할 스틸들이다.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임신부의 성이라는 곤란한 소재를 추상화하지 않고 소화한 능력도 매끄럽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차용해온 제목인 〈슬리핑 뷰티〉처럼 아직은 스스로의 욕망에 눈뜨지 않은 채 외부의 폭력에 의해서 스스로의 주체성을 자각해가는 여성에 대한 관심을 지닌 이 감독의 차기작이 벌써 기대된다. 버림받고, 강간당하고, 피 흘린 여성들이 어떠한 형상으로 귀환할 것인가. 그녀들이 받은 폭력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쾌락의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송효정 | 영화평론가**

슬리핑 뷰티

KEY
세상의 잠자는 공주들을 깨울 이 강력한 불온함.

제작사 (주)타임스토리, 필름앤북스 **감독** 이한나 **출연** 이나리, 김자영, 임아영 **배급** 키노-아이 **제작연도** 2007년 **상영시간** 109분 **등급** 미정 **개봉** 10월23일 **상영관** 시네마 상상마당, 대구 동성아트홀

피아노의 숲

ピアノの森

감독 고지마 마사유키 **원작** 이시키 마코토 **각본** 호라이 류타 **목소리 출연** 우에토 아야, 가미키 류노스케 **제작연도** 2007년 **상영시간** 100분 **등급** 전체 관람가 **개봉** 10월 30일 **상영관** CGV압구정 · 상암 · 대학로 · 강변 · 목동 · 오리 · 인천 · 서면 · 용산

KEY
음악 안에서 기쁨과 고독과 좌절을 나누며 성장하는 소년들.

아마미아 슈헤이와 이치노세 카이. 두 소년의 공통점은 또래 아이들과 달리 피아노를 무척 사랑한다는 점, 차이는 너무도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에서 시골로 잠시 전학 온 슈헤이는 피아니스트 집안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레슨과 연습에 몰두해온, 한마디로 정규음악 교육을 받은 소년이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카이는 악보조차 읽을 줄 모르지만 숲에 버려진 피아노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연주할 줄 아는 자유분방한 영혼의 소유자다. 그런 둘이 친구가 된 뒤, 슈헤이는 한번 들은 음악을 그대로 칠 줄 아는 카이의 천재성에 경탄과 질투의 감정을 갖는다. 반면 카이는 꾸준한 연습으로 흔들림없이 숙련된 음악가의 길을 걷는 슈헤이의 성실한 자세에 경외심을 갖는다.

이시키 마코토의 동명 만화를 영화화한 〈피아노의 숲〉은 화려한 기교를 부리지는 않지만,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소년들의 성장기를 음악과 드라마의 적합한 배치로 설득력있게 담아낸다. 끊임없이 홀로 길을 내며 나아가야 하는 천재의 고독감이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천재의 감수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평범한' 아티스트의 열패감뿐만 아니라 콩쿠르를 앞두고 온갖 망상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정신적인 고통, 사생활을 헌납하고 오직 연습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어린 예술가 지망생의 가혹한 운명이 잘 묻어난다.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물들의 피아노 연주인데, 그중에서도 모차르트 소나타 8번 K. 310의 '모범적인' 버전과 '창조적인' 버전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카이의 연주는 실제로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연주다.

남다은 | 영화평론가

독립영화 쇼케이스

영화제가 선택한 단편들

국내외 각종 영화제에서 호평받은 영화 3편,
〈외할머니와 레슬링〉 〈너의 세계〉 〈솔로 36분〉

외할머니와 레슬링

감독 임형섭 **상영시간** 18분25초

너의 세계

감독 서재경 **상영시간** 13분30초

솔로 36분

감독 박범수, 김남건 **상영시간** 35분36초

인디스토리와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가 주최하는 단편영화 쇼케이스, '금요 단편극장' 이 10월24일 열린다. 10월의 프로그램은 2008년, 국내외 각종 영화제에서 사랑받았던 단편 세 작품들, 임형섭 감독의 〈외할머니와 레슬링〉, 서재경 감독의 〈너의 세계〉, 그리고 박범수, 김남건 감독의 〈솔로 36분〉으로 구성된다.

밴쿠버국제영화제, 도쿄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충무로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에 초청되었던 〈외할머니와 레슬링〉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프로레슬링을 즐겨보는 외할머니와 그런 할머니를 정겹게 바라보는 손자의 어느 짧은 저녁을 다룬다. 할머니와 손자의 일반적인 관계 속에 의외의 순간들을 재치있게 배치하고, 거기서 유쾌하고도 마음 짠한 소통의 순간을 발견해내는 방식에 온기가 있다. 뉴욕한국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고 국내의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된 〈너의 세계〉는 육상대회에서 의식을 잃은 소녀의 내면을 기존의 단편영화들에서 볼 수 없었던 과감한 형식으로 밀고 가는 영화다. 현실과 꿈을 직조하는 방식이나 소녀의 내면적 고통을 섬세하게 전해주는 수중촬영 등이 인상적이다. 올해 미쟝센단편영화제의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인 〈솔로 36분〉은 극적인 서사나 감상적인 대사가 아니라 몸의 움직임을 통해 그 몸의 목소리와 마음을 보여주는 독특한 사랑영화다. 남녀가 서로의 몸에서 나오는 미세한 떨림, 기운에만 의존하며 즉흥무용으로 대화하는 장면들은 아름답고, 그런 무용장면들을 중심으로 사랑, 고독, 설렘, 슬픔의 감정선을 끌고 가는 영화의 고유한 리듬은 우아하다.

남다은 | 영화평론가

〈외할머니와 레슬링〉

가족과 극장 나들이 하자

제2회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10월22일부터 28일까지 CGV용산 및 용산 아이파크몰 일대에서

새로운 '가족 이야기'에 대한 열망과 '가족 축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한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SIFFF)가 올해로 2회를 맞았다. 개막작 〈플라이 미 투 더 문〉이 10월22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상영되는 것을 시작으로 28일까지 7일 동안 CGV용산 및 용산 아이파크몰 일대에서 열린다. 30여개국 120편(장편 50편, 단편 70편)의 각양각색 가족 이야기가 8개의 섹션에 포진됐으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도 부담없이 극장을 찾을 수 있도록 '가족 축제'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획됐다.

올해는 특별히 3D 입체애니메이션으로 영화제의 문을 연다. 벤 스타센 감독의 〈플라이 미 투 더 문〉은 닐 암스트롱과 함께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탐사에 나서는 세 마리 파리 소년들의 모험을 그린 영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흥미로운 3D 입체영상에 시각을 압도당할 것이다. '패밀리 펀! 펀! 펀!'과 '키즈 패밀리' 섹션 역시 가족 단위의 영화 관람을 권장한다. 특히 '키즈 패밀리' 섹션에서는 자막을 읽기 어려운 3살 이상의 미취학 아동을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영화를 해설해주는 시네자키가 등장해, 어린이들의 영화 보는 재미를 더해줄 것이다.

진지하게 가족 이야기에 집중하고 싶은 어른 관객을 위한 섹션도 마련되어 있다. 가족을 소재로 한 세계 각국의 최신작들을 소개하는 '월드 패밀리 나우'에선 시고니 위버와 케이트 보스워스의 연기 하모니가 인상적인 〈더 걸 인 더 파크〉, 올해 칸영화제에서 비평가주간 최우수 영화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한 〈모스크바, 벨기에〉 등을 만날 수 있다. '코리아 패밀리 나우'에선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인 윤종찬 감독의 〈나는 행복합니다〉를 비롯해 불행한 가족사를 지닌 두 남녀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인 양익준 감독의 〈똥파리〉 등 5편의 한국 '가족' 영화가 소개된다.

올해 '패밀리 포커스'에선 '이 시대의 크레이지 맘'을 다룬다. 첫 출산 뒤 모성애가 아닌 산후우울증이라는 낯선 감정에 괴로워하는 엄마 이야기 〈내 안의 이방인〉, 하숙을 치며 억척스레 살아가다 나이 쉰에 어린 남자와 늦사랑에 빠지는 엄마 이야기 〈경축! 우리사랑〉 등은 이 시대 '어머니'의 초상을 보여준다. 뉴질랜드와 독일 가족영화 특별전도 올해 새로 선보이는 섹션. 선댄스, 블라디보스토크영화제 등에서 관객의 찬사를 받았던 타이카 코언 감독의 2007년작 〈이글 대 샤크〉, 청각장애인 가족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려 평단과 관객의 사랑을 동시에 받았던 카롤리네 링크의 1996년작 〈비욘드 사일런스〉 등이 각각 특별전에서 소개된다. 이 밖에도 가족간의 갈등과 아픔을 영화로 치유하려는 '힐링 시네마' 섹션이 영화평론가이자 심리학자인 심영섭의 치유세션과 함께 진행되고, 영화제의 유일한 경쟁부문인 '한국가족단편영화 경선'에선 22편의 작품이 최우수상, 특별상, 관객상을 놓고 경쟁한다.

폐막작은 〈내 마음의 지도〉 〈천국보다 아름다운〉으로 유명한 뉴질랜드 출신 감독 빈센트 워드의 〈레인 오브 칠드런〉. 빈센트 워드가 뉴질랜드 원주민 푸히와의 만남을 바탕으로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는 다큐멘터리다.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해 다큐멘터리로 문을 닫는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는 가족이라는 주제로 꽤나 다양한 스펙트럼의 영화들을 선보인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에도, 평소 극장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감독의 신작들을 접하기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주현 | 객원기자**

〈플라이 미 투 더 문〉

〈레인 오브 칠드런〉

〈더 걸 인 더 파크〉

다시 보는 추억의 고전영화

오래된 극장 특별전, 11월7일부터 27일까지 시네마테크 부산에서

〈카사블랑카〉

〈오즈의 마법사〉

고전영화의 향연이 펼쳐진다. 시네마테크 부산에서 고전영화들을 한데 모은 '오래된 극장' 특별전이 11월7일에서 27일까지 열린다. 총 15편이 상영될 이번 특별전은 작품들의 면면이 화려하다. 먼저, 할리우드 전성기인 1930~50년대의 다양한 장르영화들이 포진해 있다. 로맨틱코미디의 대가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어느 날 밤에 생긴 일〉(1934)은 억대 상속녀 엘리의 좌충우돌 사랑 만들기다. 엘리 역을 맡은 클로데트 콜베르의 연기가 인상적인 이 영화는 전형적인 스크루볼코미디의 짜임새를 보여준다. 또,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뮤지컬 장르의 대표작 〈오즈의 마법사〉(1939), '감독들의 감독' 존 포드의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1941),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험프리 보가트와 잉그리드 버그만의 러브스토리 〈카사블랑카〉(1942)가 있다. 이 시기의 유럽영화도 빼놓을 수 없다. 프랑스 르네 클레망 감독의 〈금지된 장난〉(1952), 이탈리아의 거장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이 그의 아내이자 페르소나인 줄리에타 마시나와 함께 찍은 〈길〉(1954)이 상영된다. 특히, 〈길〉은 동물 같은 잠파노와 그를 졸졸 뒤따라다니는 순진한 젤소미나의 앙상블 연기와 펠리니의 네오리얼리즘적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또한, 오드리 헵번의 〈티파니에서 아침을〉(1961), 잭 니콜슨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1975), 리처드 기어의 〈천국의 나날들〉(1978)처럼 스타들의 대표작들도 준비되어 있다.

김성훈 | 객원기자

누벨바그 거장들, 사랑의 기억을 말하다

10월25일부터 11월7일까지 아트선재센터에서 사랑의 기억 저편-에릭 로메르&누벨바그 작가전

〈모드 집에서의 하룻밤〉

영화와 전시회가 한자리에서 만난다. 아트선재센터에서 '사랑의 기억 저편-에릭 로메르&누벨바그 작가전'이 10월25일부터 11월7일까지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10월25일부터 한달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전시회 '플랫폼 서울 2008'과 발맞춰 기획된 것. 이 전시회는 관객에게 일방적인 만남이 아닌 감각의 경험을 통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만남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아트선재센터는 '기억'과 '시간'을 주제로 한 기획전을 준비했고, 첫 번째 '기억'을 주제로 한 사랑의 기억 저편-에릭 로메르&누벨바그 작가전을 열게 됐다. 그래서 이곳을 찾은 관객은 영화와 전시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한편, 가을 정취와 어울리는 '사랑의 기억'을 테마로 한 이번 특별전에서는 누벨바그 거장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누벨바그에서 가장 연로한 작가이며, 아직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에릭 로메르 감독의 파스칼에 대한 철학적인 대화가 인상적인 〈모드 집에서의 하룻밤〉을 비롯한 〈클레르의 무릎〉 〈아름다운 결혼〉 〈해변의 폴린느〉 〈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와 히로시마에 온 프랑스 여배우 '그녀'와 일본 건축가 '그' 사이의 현실과 과거, 프랑스와 히로시마를 오가는 침묵의 대화에 관한 알랭 레네 감독의 〈히로시마 내 사랑〉, 누벨바그의 가장 오른쪽에 있었던 프랑수와 트뤼포 감독의 앙투완 드와넬 연작 세 번째 작품으로 성인 앙투완이 등장하는 영화 중 가장 인상적인 작품인 〈훔친 키스〉, 트뤼포와 반대로 누벨바그에서 가장 정치적인 노선을 걸었던 장 뤽 고다르의 최근작 〈사랑의 찬가〉까지 총 8편의 작품들이 상영될 예정이다.

김성훈 | 객원기자

SPECIAL

입맛대로 골라 즐기는 단편의 다양한 묘미

11월5일부터 10일까지 씨네큐브 광화문에서 제6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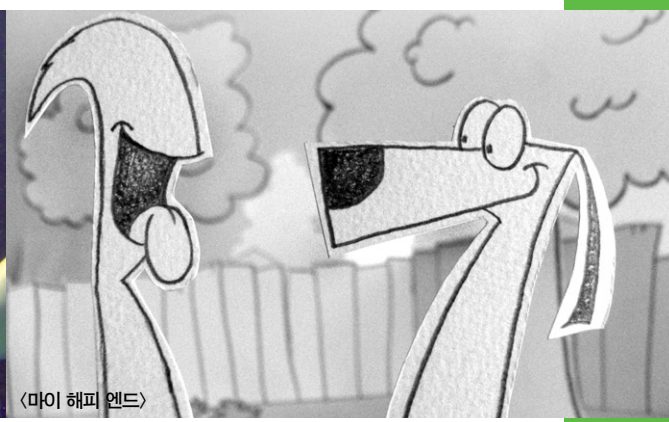
여섯 번째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AISFF)가 국적과 시대를 초월한 재기발랄한 단편 수작은 물론 다양한 게스트 및 부대행사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채비를 마쳤다. 오는 11월5일부터 10일까지 씨네큐브 광화문에서 30개국 70편의 단편을 만나자.

국내 유일의 국제단편영화제인 만큼 총 10개 부문에 걸쳐 38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는 국제경쟁부문이 메인 섹션. 69개국 1734편으로 역대 출품작 기록을 경신하면서 선정된 올해의 경쟁작은 픽션이 주를 이루지만,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도 포함되어 있어 단편의 다양한 묘미를 즐길 수 있다. 안시애니메이션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마이 해피 엔드〉(밀렌 비타노프), 클레르몽 페랑 영화제 수상작으로 애니메이션과 실사가 결합된 〈친애하는〉(오스버트 파커), 쇼트 쇼츠 영화제 관객상 수상작 〈너의 소리〉(히로시 오쿠다) 등 전세계 주요 단편영화제에서 호평받은 영화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경쟁부문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다. 물론 〈동백꽃〉 중 한편을 연출했던 소준문 감독의 신작으로 노인이 되어 재회한 동성커플을 주인공으로 하는 〈올드 랭 사인〉,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노인에 대한 단편다큐멘터리 〈신원불명〉(데보라 디니즈)처럼 단편의 소재와 형식을 실험하는 새로운 영화들을 발견하는 기쁨도 있다.

올해 눈에 띄는 AISFF의 변화는 특별프로그램들에서 찾아볼 수 있을 듯하다. 리들리 스콧(〈소년과 자전거〉, 1965),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킬러들〉, 1956)의 첫 단편을 비롯하여 왕가위(〈태양은 하나다〉) 감독의 최신작이 단편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감독열전: 시네마 올드 앤 뉴', 관습과 물량보다는 아이디어와 감각으로 승부하는 단편다운 호러영화들을 한자리에 모은 '11월의 나이트메어', 프랑스 단편영화의 현재를 살필 수 있는 '믹스플래닛: 봉주르, 프랑스' 등 총 3가지의 프로그램을 입맛대로 즐기면 된다. 누벨바그의 후예인 필립 가렐을 아버지로 둔 루이스 가렐(〈몽상가들〉)이 직접 연출한 단편영화 〈친구들〉과 직접 출연한 단편영화 〈선택된 사랑〉을 들고 게스트로 영화제를 방문할 예정이며, '11월의 나이트메어'와 관련하여 충무로에서 활동 중인 특수분장사가 진행하는 '마스터 클래스: 특수분장의 쓰리 스탭과 단편영화'는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감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행사로서 눈길을 끈다. 한편 올해 개막작으로, '믹스플래닛: 봉주르, 프랑스' 초청작인 〈아스팔트 위의 마농〉(엘리자베스 미레, 올리비에 퐁트)과 함께 상영되는 〈7인의 초인과 괴물 F〉(박종영)는 지난해 AISFF의 사전제작지원작으로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아시프 펀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지원제도는 올해도 계속되어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운 지원작이 몰렸으며, 오는 10월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체크를 잊지 말 것(문의: www.aisff.org).

오정연 | 자유기고가

〈너의 소리〉


〈마이 해피 엔드〉

영화제의 신인들이 스스로 꾸리는 진짜 영화제

11월6일과 7일, 인디스페이스에서 'Welcome to My Film Festival'

〈마야 거르츄〉

〈아스라이〉

우리 영화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1월6일과 7일,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개최되는 'Welcome to My Film Festival'은 지난 8월23일부터 3개월간 진행된 영화상영실무강좌 수강생들이 선보이는 졸업작품이다. 특이한 것은 상영작이 아닌, 영화제 자체가 졸업작품이라는 사실. 영화 신인이 아니라 영화 '제' 신인의 감식안을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지난 몇년간 각종 대안배급을 실험했고 값진 결말을 냈던 독립영화배급지원센터가 주최한 강좌에 참석한 수강생들은 영화 상영 프로그래밍부터 장비, 행사 홍보 등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15편의 장 · 단편을 선보이는 이번 영화제를 온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준비했다고 한다.

섹션은 총 3개. 차별, 독립영화, 치정이 키워드다. 섹션1,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성적 소수자, 그중에서도 여성에서 남성으로(female to male) 성전환한 3명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다큐멘터리 〈3×FTM〉(김일란)을 비롯하여 이주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마야 거르츄〉(우보연) 등 다섯 작품을 선보인다. 비영화학과 출신 연출자의 영화, 그리고 기존 영화제에서 볼 수 없었던 작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의 결과 선정된 영화들이 상영되는 섹션2, '리얼 인디무비의 발견'은 상영 뒤 〈아스라이〉의 김삼력 감독과 상영작 감독들의 오픈토크까지 마련돼 있다. 그리고 섹션3, '치정 시대'는 독립영화의 인기 화두 중 하나인 연애와 정치가 서로 만나는 영화 다섯편이 포진했다. 상영작 〈에로틱 번뇌보이〉의 감독 최진성과 윤성호 감독이 진행하는 '척척박사 연애상담소'라는 기묘한 이벤트도 주목할 만하다. **오정연 | 자유기고가**

CinDi2008 화제작 전국을 물들이다

신디 잼 하베스트, 10월24일부터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6개 도시에서

〈살아남은 자의 송가〉

너무 더워서, 혹은 너무 멀어서 포기했던 분들을 위한 가을의 선물. 지난 8월 CGV압구정에서 열렸던 시네마디지털서울(CinDi) 2008의 수상작 네편과 화제작 여섯편 등 10편의 주요 상영작들이 10월24일 광주극장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 인천을 거쳐 11월19일 서울의 CGV압구정에서 막을 내릴 때까지 전국 6개 도시에서 '신디 잼 하베스트'라는 이름으로 지역 관객을 만난다. 위광이 감독의 신작 〈살아남은 자의 송가〉는 감독 심사위원이 수여하는 레드카멜레온상 수상작으로, 다카하시 이즈미 감독의 〈손뼉 치고 주먹 콩콩〉은 국제비평가 심사위원이 선정한 블루카멜레온 수상작으로, 〈밤비 내리는 목소리〉(이가라시 고헤이)와 〈매미 소녀〉(펑타오)가 각각 국내비평가 심사위원의 그린카멜레온, 관객 심사위원의 화이트카멜레온 수상작으로 상영 목록에 올랐다. 이 밖에 1인 제작 장편애니메이션으로 촌철살인의 사회풍자를 보여준 〈비밀결사 매의 발톱단: 총통은 두번 죽지 않는다〉(가에루 오토코), 야마시타 노부히로(〈파리 텍사스 모리구치〉 〈참 작은 세계〉)와 닝하오(〈기적 세계〉)의 디지털 중편 등은 화제를 모았던 상영작으로서 관객을 다시 만난다.

관람료 5천원. 정확한 상영관 정보와 일정의 사전 문의는 필수다(www.cindi.or.kr, 02-511-7553~4).

오정연 | 자유기고가

오, 원더풀! 인디정신 충만한 독립영화들의 향연

인디스토리 10주년 기념하는 오! 인디풀영화제, 11월9일부터 인디스페이스 등에서

2008년은 한국 독립영화계의 의미심장한 해다.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함께 10주년을 맞이한 인디스토리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 인디풀영화제'(Oh! Indieful Film Festival)를 마련했다. 국내 유일의 독립영화 배급사로서 지난 10년 동안 인디스토리가 일구었던 값진 열매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10년을 기약하기 위한 행사다. 오는 11월9일부터 20일까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서울아트시네마(11월11~16일), 시네마 상상마당(11월13~19일), 미로스페이스(11월13~14일) 등 다양한 상영관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이번 행사의 상영작은 국내외 장 · 단편 독립영화 46편. 그중 독립영화계 안팎의 전문가 10인의 추천으로 선정된 40편의 독립영화들은 작가의 깊이가 돋보이는 '보다 깊이', 독립영화만의 상상력과 위트를 지닌 '보다 자유롭게',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는 '보다 멀리' 등 총 3개의 섹션으로 나뉜다. 그리고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네티즌이 가장 사랑한 영화를 선정해 프로그래밍할 예정이다.

〈대학로에서 매춘하다가 토막살해당한 여고생 아직 대학로에 있다〉(2000) 등 독립장편영화 배급의 가능성을 엿보게 했던 장편부터 꾸준한 발걸음으로 진정한 독립영화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안슬기 감독의 따끈따끈한 장편 신작 〈지구에서 사는 법〉(2008)까지, 독립영화의 도발적인 급진성으로 화제가 됐던 〈엄마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1997)부터 최근 독립애니메이션의 최고 인기 작가 장형윤 감독의 〈아빠가 필요해〉(2005)까지, 〈달콤한 나의 도시〉 〈아내가 결혼했다〉 등 최근에는 시나리오작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송혜진 감독의 연출작 〈안다고 말하지 마라〉(2002)부터 인디스토리가 배급했던 독특한 감성의 이탈리아 영화 〈애프터 미드나잇〉(2004)까지, 국적과 시대, 성격이 저마다 다른 기념비적인 독립영화가 총망라됐다.

이송희일 감독의 〈굿 로맨스〉 〈슈가 힐〉, 김동원 감독의 〈송환〉, 김종관 감독의 〈폴라로이드 작동법〉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국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관객을 만났던 최근의 인기작 외에도 2000년을 전후하여 화제가 됐던 '당대의 독립영화'들이 눈길을 끈다. 제한된 조건에서 최대의 테크닉을 구사했던 원신연 감독(〈세븐 데이즈〉)의 〈자장가〉(2002), 한국 독립영화에서 여성주의적 수다의 미학을 연출했던 장희선 감독의 〈고추 말리기〉(1999), 성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뭉스런 화법으로 화제를 모았던 권종관 감독(〈S다이어리〉)의 〈이발소 이씨(異氏)〉(2003) 등 이제는 충무로 상업영화로 더 익숙해진 감독들의 '그 시절 독립영화'를 확인하는 재미 또한 쏠쏠할 것이다.

뿐만 아니다. 미국 독립영화계 최대 행사 중 하나인 '필름 인디펜던트 스프릿어워드' 중 미국 독립영화의 대부 존 카사베츠를 기리기 위한 '존 카사베츠 어워드' 부문의 상영작 중 선정된 미국 인디영화의 특별섹션이 마련되어 있다. 〈어거스트 이브닝〉 〈네눈박이 괴물들〉 〈열두 살의 기억들〉 등 6편. 제작비 50만달러 미만의 작품이 선보이는 무한한 상상력은 물론, 미국 독립영화의 최신 경향까지 엿볼 수 있다. 11월20일 오후 4시 인디스페이스에서는 저예산 독립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포럼도 열릴 예정. 곳곳에 '충만한 인디정신'(Indieful)을 빠짐없이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문의: 02-722-6052).

오정연 | 자유기고가

〈안다고 말하지 마라〉

〈자장가〉

〈굿 로맨스〉

위기의 노동시대 노동영화가 던지는 화두

11월3일부터 16일까지 인디스페이스에서 제12회 노동영화제

〈물을 둘러싼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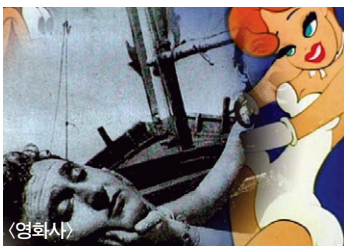
흉흉한 세상, 팍팍한 삶.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 노동영화제의 화두가 절절하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11월13일부터 16일까지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선보이는 제12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의 키워드는 모두 여섯개. 지난 몇년간 유난히 첨예해진,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곪아왔던 문제들이다. 학습지교사노동자(〈천막〉), 광주시청 청소노동자(〈지금 보고 계신 거죠?〉)부터 샌프란시스코 자전거 택배 노동자(〈택배 노동자들 SF Mess〉)까지 만날 수 있는 '비정규직' 섹션, 미국의 상수도(〈물을 둘러싼 전쟁〉), 아르헨티나 지하철 공사(〈그들 역시 투쟁한다〉) 등을 통해 사유화 열풍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유화' 섹션 등을 통해 글로벌 시대, 노동운동의 글로벌한 화두를 확인해보자. 〈영국 노동사 5부작〉을 비롯하여 철도노조 설립자를 통해 미국의 노동운동사를 살피는 〈유진 뎁스와 미국 노동운동〉, 뉴스릴로 이루어진 스페인 내전 다큐멘터리 〈마드리드에서 죽다〉 등을 통해 생생한 역사 공부도 가능하다. 이주노동자 밴드를 다룬 다큐멘터리 〈어둠 속의 등불〉처럼 어느 정도 익숙한 소재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영화도 있다.

이 밖에도 68혁명 당시 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극영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등 두편이 포진한 극영화 섹션도 있다. 개막작은 기륭투쟁, KTX투쟁, LIG/에이스손해사정노조투쟁 등 2008년 국내에서 진행됐던 다섯 가지의 치열한 노동자 투쟁을 각 5분씩의 영상에 담은 2008년, 한국 노동자투쟁 〈5×5〉이며, 폐막작은 독일 노동자들이 공장 폐쇄에 저항했던 기록을 담은 〈무엇이 문제인가?〉이다.

오정연 | 자유기고가

영화사 100년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

10월31일부터 11월6일까지
시네마테크 부산에서 고다르 영화전'


〈영화사〉

깊어가는 가을에 어울리는, 깊이있는 영화적 성찰의 기회. 10월31일부터 11월6일까지 시네마테크 부산에서 고다르를 만날 수 있다. 누벨바그의 시작이었고,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영화 혹은 예술의 본질과 역사를 사유하는 작업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의 최근작 3편을 상영하는 '고다르 영화전'의 상영작은 〈영화사〉(1988~98), 〈사랑의 찬가〉(2001), 그리고 〈아워 뮤직〉(2004). 평생 동안 새로운 영화를 향한 실험을 거듭했던 고다르의 후기작 세편 모듬이자, 영화사 10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고다르의 사유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이미지와 사운드로 이루어진 영화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 몽타주만 사용하여 10년 동안 서술된 고다르 버전 〈영화사〉(총 4부, 8장)는 물론, 영화를 만들려는 감독을 주인공을 하는 〈사랑의 찬가〉, 단테의 〈신곡〉을 끌어들여 영화를 통해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워 뮤직〉까지, 이들은 결국 21세기를 살아가는 노년의 고다르가 여전히 역사 속에서 영화로서 가능한 실천을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화제 혹은 개봉을 통해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관객에게 소개된 영화들이지만, 이번에는 친절한 해설과 강의를 함께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반갑다. 11월1일, 〈영화사 I〉과 〈영화사 II〉의 상영 전후에 〈씨네21〉 정한석 기자가 강연자로 나선다. 월요일 휴관. 문의 051-742-5377, cinema.piff.org.

오정연 | 자유기고가

사과는 달콤하고도 시다

이석원
언니네 이발관 보컬

〈사과〉

✚ 내가 〈사과〉를 보기로 한 이유는 이 영화를 그림으로 우리 노래,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이란 곡이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이렇게 영화를 그림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방식은 영화와 음악 양쪽의 이익이 타협한 결과로 자주 이뤄지고 있는데 영화는 홍보가 돼서 좋고 음악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영상을 씀으로써 제작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노래, 혹은 영화가 대박이라도 나는 날엔 다른 쪽에 반사이익이 또한 장난이 아니게 떨어지므로 이후로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사실 이 영화를 몰랐었다. 그래서 회사의 책임자가 어느 날 "우리 뮤직비디오 〈사과〉로 가게 됐어요" 하는데 난 처음엔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다. "네? 사과 뭐요?"라고 했더랬다.

알고 보니 몇년 전에 개봉을 하려다 여의치 않아 극장에 올리지도 못했다는 것, 그런데 어디 외국 나가서는 무슨 상도 타고 좋은 평을 받았다는 것, 또 그런 '좋은' 영화가 이제 드디어 개봉하게 되었다는 것 등등을 알았다. 그렇게 영화에 대해 점점 알아가면서 영화의 내용 또한 노래 가사와 제법 잘 맞아떨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자, 영화 속에서 이선균이 문소리를 찬다. 둘이 7년을 사귀었는데 차이는 건 금방이다.

하지만 정말 금방 찼을까? 이선균은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복잡해진다. 가해자의 가해동기가 단순해야 하고 이후 감정적으로도 뒤탈이 없어야 하는데 이 가해자(이선균)는 결국 문소리를 잊지 못하고 다시 찾아온다.

왜? 그의 고백은 이렇다. "너와 헤어지고 나서 하루도 니 생각을 안 해본 날이 없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연애초보일 가능성이 높다. 노래 〈아름다운 것〉에서의 화자도 표면적으로는 가해자다.

내가 먼저 사귀자고 해놓고 내 마음이 먼저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러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가해자이지만 그는 슬프다. 나도 어떡할 수 없는 내 맘과 감정인 탓이다. 모든 연애영화가 그렇듯 보는 내내, 또 보고 나서도 결국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은 귀결되게 마련이다.

내 나이 서른여덟. 이제 두달만 있으면 아홉이 된다. 연애? 많지는 않아도 해볼 만큼은 해봤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젊은' 여성의 생각지도 못했던 프러포즈를 받고서 난 이런 대답을 해줬다.

"어차피 헤어지면 일이년밖에 보지 못할 테니 우리 사귀지 말고 그냥 이대로 오래도록 지내자."

그랬더니 펄펄 뛴다.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상상만 하냐고.

삼년 전에, 이 친구처럼 나이 차이가 많은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도 사랑은 달콤하지 않다고 했더니 대뜸 화를 냈었다. 하지만 결말은?

결국 우린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헤어졌다.

누구나 결말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데도 또 사랑을 찾는다.

어떡해야 하지? 난 어떡해야 할까.

또다시 사랑을 시작해야 하는가?

둘이 같이 영화 〈사과〉를 보고 결정할까 보다.

BOARD

전국의 아트플러스 상영관 정보를 한곳에서 만난다

광주극장

와이드 스크린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영화의 최정점
세르지오 레오네 컬렉션
〈옛날 옛적 서부에서〉 외 3편
샘 페킨파
〈와일드 번치〉 〈대평원〉
10월27일~11월2일

대전아트시네마

〈비몽〉 〈슬리핑 뷰티〉
함께 보면 좋아요!!!
가을에 떠나는 즐거운 감성여행
〈텐텐〉 〈두 개의 눈을 가진 아일랜드〉
지금 세계는 디지털영화에 빠진다.
신디 잼 하베스트2008
서울디지털영화제 순회상영

미로스페이스

실화, 사랑 그리고 재즈. 2008년 가을
을 위한 모든 감동!! 〈피아노, 솔로〉
봉준호! 미셸 공드리! 레오스 카락스!
천재감독의 무한상상 〈도쿄!〉
10월23일 개봉!!
ARS 02-3210-3357,
www.mirospace.co.kr

허리우드클래식

사랑의 필연적 실패, 그래서 숭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합일의 순간을
일본의 대표적 꽃미남 오다기리 조와 한국의
대표미녀 이나영이 더욱 아름답게 만든 영화
〈비몽〉.
지금 만나세요.
문의: 02-3672-4232~3

동성아트홀

깊어가는 가을… 동성의 영화들로
마음을 살찌우세요.
10월23일~11월2일 〈여기보다 어딘가에〉
〈하늘을 걷는 소년〉 〈슬리핑 뷰티〉 〈가벼운 잠〉
11월3~5일 신디 잼 하베스트 영화제
〈패스트 퓨리어스 & 언리미티드〉 〈길〉
11월6~11일 〈구구는 고양이다〉
〈빅시티〉 〈카라멜〉 〈비몽〉

씨네시티

미셸 공드리, 레오스 카락스, 봉준호,
세 감독들의 기발하고 신선하고 상상발
랄한 세편의 영화를 씨네시티에서
만나세요.
ARS 1644-0757
www.icinecity.co.kr

시네마 상상마당

재즈 피아니스트의 실화와 감동
〈피아노, 솔로〉 상영 중!
천재 뮤지션 '이언 커티스'의 삶이 담긴
〈컨트롤〉 상영 중!
문의: 02-330-6263
cinema.sangsangmadang.com
cafe.naver.com/cinemasangsang

CGV 무비꼴라쥬

클래식 판타지 애니메이션
〈피아노의 숲〉을 무비꼴라쥬에서 만나요!
무비꼴라쥬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는
cafe.naver.com/loveindian로
지금 놀러오세요~.

씨너스 에채 AT9

10월23~29일 스크린에서 만나는
세계의 베스트셀러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파이란〉 〈냉
정과 열정사이〉 〈시간을 달리는 소녀〉
〈향수〉 〈색, 계〉 〈어웨이 프롬 허〉 등
책과 함께 즐기는 영화 잔치, 세계의 베
스트셀러들을 스크린에서 만나세요!
cafe.naver.com/cinusat9

씨네큐브

당신의 첫 번째 동화,
그리고 마지막 러브스토리
〈나는, 인어공주〉 10월23일 개봉(ARS
1588-8831, www.cineart.co.kr)
아시아나단편영화제
11월5~10일 6일간
1700여편의 예선을 거친 본선
국제경쟁작 52편 포함, 70편의 영화상영

국도&가람예술관

10월23일 드디어 개봉!!
가슴의 상처를 치유하러 떠난
그들이 돌아온다,
〈집오리와 들오리의 코인로커〉.
다중인격 범죄스릴러 〈매드 디텍티브〉.
어른들이 사라진 아이들의 즐거운 도시
〈빅시티〉.
문의: 051-245-5441
cafe.naver.com/gukdo

아트하우스 모모

〈나는, 인어공주〉 10월23일 개봉(ARS
363-5333, www.cineart.co.kr)
#라틴아메리카로 떠나는 영화 배낭여행
2탄 10월23일~11월5일
#오구리 고헤이 감독 특별전
11월6~12일
칸영화제 그랑프리 〈죽음의 가시〉 등
전작 상영

서울아트시네마

영화사 강좌 '기억/역사/몽타주
-누보로망/누보 시네마'
일시: 10월25일(토) 13:00 〈멜로〉
상영 뒤, 10월26일(일) 14:30 〈거짓말
하는 남자〉 상영 뒤, 10월30일(목)
19:00 〈우리들은 그 노래를 알고 있다〉
상영 뒤
문의: 02-741-9782
www.cinematheque.seoul.kr

스폰지하우스

세계에서 가장 바쁜 도시 도쿄를 두고
천재 감독들이 펼치는 달콤한 상상!
세계 최고의 감독들이 선택한 지금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한 〈도쿄!〉
10월23일 개봉!

인천 영화공간 주안

영화공간과 함께하는 다양한 영화 세계!!
1. 일상의 깊은 곳에서 만나는 세 가지 희망
〈젤리피쉬〉!!
2. 같은 곳을 바라보는 두 아이의 열정!!
〈소리 아이〉
3. 상큼한 첫사랑의 풍경, 한효주 주연의
〈달려라 자전거〉!!
www.영화공간주안.com
cafe.naver.com/cinespacejuan

롯데시네마 아르떼

아빠의 벽화를 지키기 위해 서울로
떠난 소년감독 상구를
롯데시네마 아르떼에서 만나세요.
〈소년 감독〉 롯데시네마 아르떼
10월30일 단독개봉!!
문의: 1544-8855
www.lottecinema.co.kr

하이퍼텍나다

10월30일부터 11월5일까지 하이퍼텍
나다 재오픈 기념 특별전이 열립니다.
'커밍순 COMING SOON & 나다
베스트 컬렉션'
개봉영화 신작을 미리 만나는 즐거움과
꼭 보고 싶었던 추억의 영화들이
상영됩니다.

서울애니시네마

전세계가 애니메이션의 탄생을
축하하는 '국제 애니메이션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상영회 및 워크숍을
서울애니시네마에서 즐기세요.

드림클래식

19세기 초 실제 사건 소재
〈아메리칸 헌팅〉 드림시네마 단독 개봉!!!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또 한번 느끼는
영혼의 울림 〈미션〉
〈타짜〉 한예슬의 영원한 오빠 주윤발!
〈영웅본색〉은 쭈욱 계속됩니다.
문의: 02-362-3149
www.classiccinema.co.kr

필름포럼

기억하니? 온 숲을 물들였던
신비로운 피아노의 선율을…
〈피아노의 숲〉 10월30일 개봉!
사랑이란 마주보며 딴 생각하는 것!
〈사과〉
문의: 02-312-4568
cafe.naver.com/filmforum
www.filmforum.co.kr